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행복한 교회 - 이성은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샤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턴)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9월 19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분당
-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분당
-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분당
-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툴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베툴레헴
11:00AM / 나사렛
-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분당
-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툴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 6:00AM / 분당
-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전우일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남궁곤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주께 가까이”

기도

1부: 채길호 집사
3부: 백동선 집사

봉헌찬양

1,3부: 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공동체 소식

* 성경 본문

룻기 1:1-6

제목

“Return”

말씀 선포

남궁곤 목사

* 응답 찬송

1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3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8)

7. **영어부 Servant Leadership Training:** 일시: 9/25(토) 오전 9시- 오후 3시. 장소: 안디옥 성전, 감사 David Gass 목사(NWBC에서 사역). 영어부 리더십 훈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자원봉사자 모집:**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바랍니다.
(1) 다음세대(유치부, 유년부, Youth, Awana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2) 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일예배 때
9.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수수료 헌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헌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코로나 방역 지침

-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세요.
- 2) 성인예배는 입장 절차를 생략합니다(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지 않음).
- 3) 다음세대예배(유치,유년,Youth)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 4) COVID-19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안전 운전: 84번가에서 데이케어쪽 게이트나 M스트리트로 진입하거나, 반대로 교회에서 84번가로 나갈때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목회자 휴가:** 안재훈 목사 휴가 (9/13-9/25)

◇ **소천:** 故 김철조 성도(김정숙 집사 부친) 9/16 한국에서 소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 James Roberts, Willie Buggs, Leah An, Tiffany Walker,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neth Adkins, Eric Mose, Tom Bayliss, 신의범,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진행과정 안내

- 1) 청빙위원회는 지난 주일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청빙 후보자 설교에 초대할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했습니다.
- 2) 현재(2021-9-19), 후보자에게 청빙 설교 초청 메일을 보냈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 최종 후보자의 청빙 설교 날짜는, 후보자가 청빙 설교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기 1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4) 앞으로 남아 있는 청빙과정과 최종 후보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디모데제자훈련 2단계**(기독교 기본진리)를 지난 주일에 개강했습니다. 수강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부터 시작하는 어와나와 한글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차장 Storm Drain Pipe 보수 공사**를 지난 주(9/13-15)에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정주영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박수정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평강 36]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10:17-24
말 씀 선 포	정주영 목사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채길호 집사 3부 백동선 집사 수요 박수정 집사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안병철 집사 수요 백장미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9/20(월)	사사기 21:16-25	정주영 목사	9/21(화)	디모데전서1:1-11	전우일 목사
9/22(수)	디모데전서1:12-20	남궁곤 목사	9/23(목)	디모데전서2:1-15	전우일 목사
9/24(금)	디모데전서3:1-13	정주영 목사	9/25(토)	디모데전서3:14-4:5	남궁곤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시다**

□ **본문: 사사기 13:4-5**

'정죄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은혜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매번 독특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사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 마다 먼저 그들의 죄를 [정죄]하게 되지만, 결국 [공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기드온]과도 같은 끊임없는 욕망의 사람이며, [입다]와도 같이 늘 내 이익만을 쟁기기 위하여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고, [삼손]처럼 교만하며 끝까지 나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다 것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며, 그 '죄'를 구경만 하고 있던 나의 육적인 시선이 병하여 영적인 면을 보게 되어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인생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쫓기며 살지 않고) 나도 한 번 즈음 '구원의 도구'로서 제대로 한 번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목표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 [정죄]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은혜]로, 그리고 [소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나는 누구인가?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삼손의 정체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의 엄청난 '힘'만을 기억하며 시대의 영웅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정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다른 정체성으로 보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 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나실인] 이었고, 죽을 때 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도록 '정체성'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즉,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은근한 눈초리에 등 떠밀려서 겉모습은 [나실인] 으로서 보여졌는지는 몰라도,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접근으로 삼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불순종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기에서 단 한번도 [나실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합니다. 부정확한 이방 땅을 다니며, 늘 음란하게 살며, 부모님을 속이며,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다. [나실인] 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나실인] 으로서 살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타락과 교만을 모르셨을까요? -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삼손의 실패'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삼손은 [나실인] 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 하는 '사사'로서도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사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나실인] 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실패하였다고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2. 삼손을 본보기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신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시대 중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여호와와 영]이 임하실 수 있는 [나실인] 과 같은 부르심의 한 사람, '구원의 통로'를 찾고 계셨습니다. 즉, 죄악 된 세상과 구별되어(거룩함이 몸에 배이도록)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수 있는 '한 사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아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으로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보시던 삼손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 될 때부터 [여호와와 영] 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13:25). 또한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랬고(14:6),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갔을 때에도 [여호와와 영]이 임하십니다(14:19). 그리고 '나귀 턱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심판한 날도 그렇습다(15:14).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야말로 진짜 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극도로 교만하게 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삼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와 영]이 떠나 버리십니다(16:20).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삼손이 머리털을 잘라서 그래서 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지만(그것이 삼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긴 머리칼은 [여호와와 영]이 임하실 수 있는[나실인]의 상징일 뿐입니다. 즉, 이 날 삼손은 스스로 [나실인]의 [정체성]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식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고, 정결법을 지키며 남들과 구별되어 살면서 지경도록 들어온 자기 정체성을 왜 몰랐겠습니까? 위기 때 마다 [여호와와 영]이 임하셔서 자기를 사용하신 것을 본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삼손은 그 모든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 그 위선과 욕망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까지 지켜 나가야 할 거룩한 소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정죄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은혜로] 진정한 은혜와 소망의 지경으로 나아가려면, 삼손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와 영], 즉,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 부르심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뵈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지만 삼손은 고난 중에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나실인] 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 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와 영]이 임하시는 한 사람 으로서, 죽을 때 까지 '죄'로부터 구별된 [나실인] 으로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삼손의 이야기가 '힘'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부르심의 '한 사람', [나실인]의 정체성으로 사용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와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그 귀한 정체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원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정죄]하였다가 [공감]하는 데까지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나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불편한 모습이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삶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까? 만약 현재 나의 삶의 모양이, 기도와 예배, 그리고 경건 생활을 내려놓고 있었다면, 나 역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두 눈이 뻗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삼손과 같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대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에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정말 깊게 묵상 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삼손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하여, 삼손이 삼손이 되게 하셨듯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러진 [나실인] 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까지, [나실인] 과 같이 구별된 한 사람 으로서 이미 하나님께 드러진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다른 일주일의 시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삼손과 같이 부르짖으며, 나에게 이번 한 번 만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패하는 그 현장속에서, 부르짖음을 통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되시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적용 질문]

1.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2.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으로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우리가 삼손처럼 함께 부르짖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